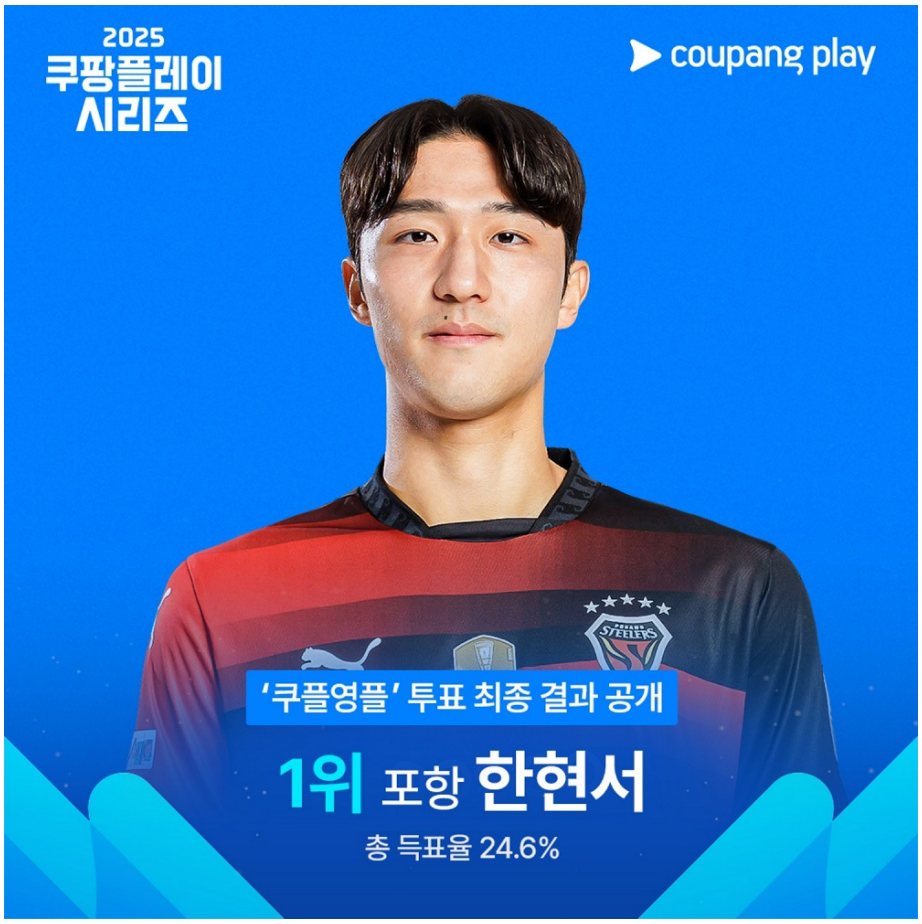
coupang newsroom
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, K리그 유망주 한현서 '쿠플영플' 선정 뉴캐슬 상대로 맞대결 나선다!

2025. 7. 2.



한현서가 팀 K리그 '쿠플영플'에 선정되며,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 뉴캐슬 전에 출전한다.

- **포항 신예 수비수 한현서, 입단 첫 해 주전 꿰차며 '이달의 영플레이어상' 수상 득표율 24.6%로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 '쿠플영플' 선정"**
- **'팬 일레븐' 투표 7월 4일 시작 팬 참여로 완성되는 팀 K리그, 뉴캐슬과의 맞대결 기대감↑**

2025. 07. 02. - 쿠팡플레이는 오는 30일(수)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'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' 1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(이하 뉴캐슬)와 맞붙는 팀 K리그의 '쿠플영플' 선수로 포항 스틸러스(이하 포항)의 신예 수비수 한현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.

'쿠플영플'은 K리그1 소속 12개 구단이 올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만 22세 이하(U22) 유망주 각 1명을 추천하고, 팬 투표를 통해 최종 1인을 선정하는 쿠팡플레이의 특별 이벤트다. 팬 투표는 지난 6월 23일(월)부터 일주일간 쿠팡플레이에서 진행됐으며, 한현서는 최종 득표율 24.6%를 기록하며 윤재석(울산), 신민하(강원), 채현우(안양)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영예의 주인공이 됐다. 자세한 투표 결과는 쿠팡플레이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한현서는 울산 HD U18 출신으로, 올 시즌 포항에 입단한 신인 수비수다. 정교한 킥과 패싱 능력,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빠르게 주전 자리를 꿰찼다. 팀 내에서도 가장 꾸준하고 안정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,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지난 5월에는 K리그 '이달의 영플레이어상'을 수상했다.

한현서는 **"팬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'쿠플영플'에 선정되어 영광이다"라며, "특별한 기회를 주신 만큼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**라고 소감을 밝혔다.

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'쿠플영플' 투표 최종 결과

지난해에는 강원FC의 양민혁이 '쿠플영플'로 선정돼 토트넘 홋스퍼와의 맞대결에 나섰으며, 이후 국가대표 발탁과 프리미어리그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. 이처럼 '쿠플영플'은 팬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유망주들에게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실전 경험을 제공하고,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팀 K리그의 베스트 일레븐을 가리는 '팬 일레븐' 투표는 오는 4일(금)부터 13일(일)까지 K리그 공식 애플리케이션 'Kick'을 통해 진행된다. 팬들은 매일 한 번씩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, 골키퍼 1명, 수비수 4명, 미드필더 3명, 공격수 3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. 최종 선발된 베스트 일레븐은 '쿠플영플'로 선정된 한현서와 함께 팀 K리그 소속으로 '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'에 출전한다.

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 베스트 일레븐을 가리는 '팬 일레븐' 투표가 진행된다.

한편, '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'는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·2경기 선예매가 모두 매진됐다. 현재 남아 있는 2경기-토트넘과 뉴캐슬의 일반 예매는 오는 7월 4일(금) 오후 8시에 시작되며, 자세한 내용은 쿠팡플레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